

권혁승 교수의 <남북 왕조의 멸망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3강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2) :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움

오늘의 포인트

1.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여리고 앞 요단강 건너편인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늘로 승천한 스승 엘리야를 제자 엘리사는 어떤 자세로 따랐는가?
3.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무엇인가?

서론적 언급

-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 중 두 번째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다
- 아하시야의 죽음이 하향 곡선의 나선형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엘리사의 후계자 임명은 상향 곡선의 나선형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준다
- 엘리사의 후계자 임명은 그가 보여준 신앙의 역동적 자세와 직결되어 있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열왕기하 2장 1~7절)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1) 승천을 향한 엘리야의 여정

- a. 엘리야의 승천이 임박했다는 것은 엘리야 자신을 포함하여 엘리사 및 다수의 제자 선지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런 점은 벳엘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말 속에 들어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3, 5절)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1) 승천을 향한 엘리야의 여정

- b.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승천을 준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 것을 거듭하여 요청한 점이다.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은 엘리사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testing; temptation이 아님)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이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1) 승천을 향한 엘리야의 여정

c. 엘라야의 그런 요청은 출발지인 길갈(2절)을 비롯하여
벧엘(4절)과 여리고(6절)에서 거듭하여 반복되었다

d. 그런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초지일관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그의 단호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2, 4, 6절)
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 있음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의 맹세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1) 승천을 향한 엘리야의 여정

- e. 엘리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은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6절 끝부분)이다
- f.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은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7절)
영적 집중력이 어떠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생긴다
엘리사처럼 직접 동참자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제자 선지자들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는
참관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은
우리의 영적 집중력에 달려 있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2) 왜 엘리야의 마지막 행선지가 요단강이었는가?

a. 엘리야의 승천을 향한 여정은

길갈에서 출발하여 유다 산지의 벤엘을 거쳐
중앙 계곡 내의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이어진다
엘리야가 그런 지역들을 거쳐온 것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 선지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2) 왜 엘리야의 마지막 행선지가 요단강이었는가?

b.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은 두 가지 성경 역사와 관련된다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던

느보산 비스가봉이 그 근처에 위치한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넌 지점이다

c. 엘리야의 승천 장소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을 이끈 여호수아가 남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 엘리야의 승천을 위한 여정

2) 왜 엘리야의 마지막 행선지가 요단강이었는가?

d.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모세와 동일시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여호수아와 동일시될 수 있다

엘리야는 또 다른 출애굽의 영도자인 셈이다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등장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4~5)

e.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된다 (마 17:3)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열왕기하 2장 8~10절)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 1)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가 한 일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 갈라지게 한 후 둘이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넌 일이다 (8절)
이것 역시 모세의 홍해 가림과 여호수아의 요단강 가림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출애굽 당시에는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지만
지금은 한 장소에서 두 인물이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다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 2)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였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8절)
이는 엘리야는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엘리사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되면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 3) 엘리사의 즉각적인 답변은 '갑절의 성령 역사'였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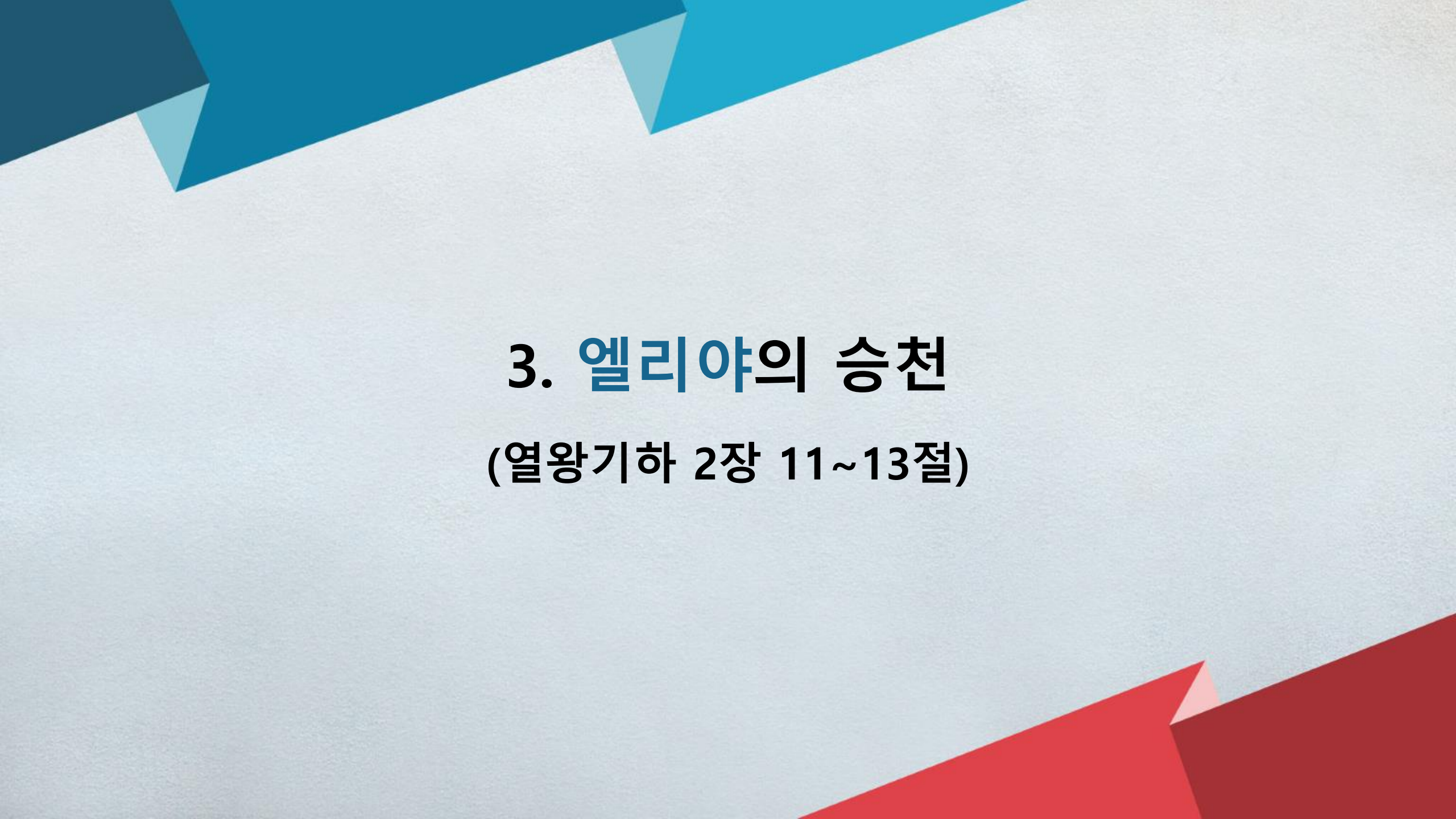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 4) 엘리사의 요청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에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관점의 부나 명예나 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에는 주변적이고 부수적이다
그것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듣는 마음)와 같은 성격이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기에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모든 것을 우선하는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
(왕상 3:12~13)

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

5) 엘리사가 요청한 '갑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역사보다 두 배가 더 많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갑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피 쉬나임'은 '두 몫'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신명기 21:17에 언급된 장자에게 분배될 두 몫이다. 엘리사가 요청한 '두 몫'은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정통 후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면서 그의 겹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 그를 후계자로 삼았었다(왕상 19:19)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승계하는 실제적 후계자가 되었다



3. 엘리야의 승천

(열왕기하 2장 11~13절)

3. 엘리야의 승천

- 1)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불 수레와 불 말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3. 엘리야의 승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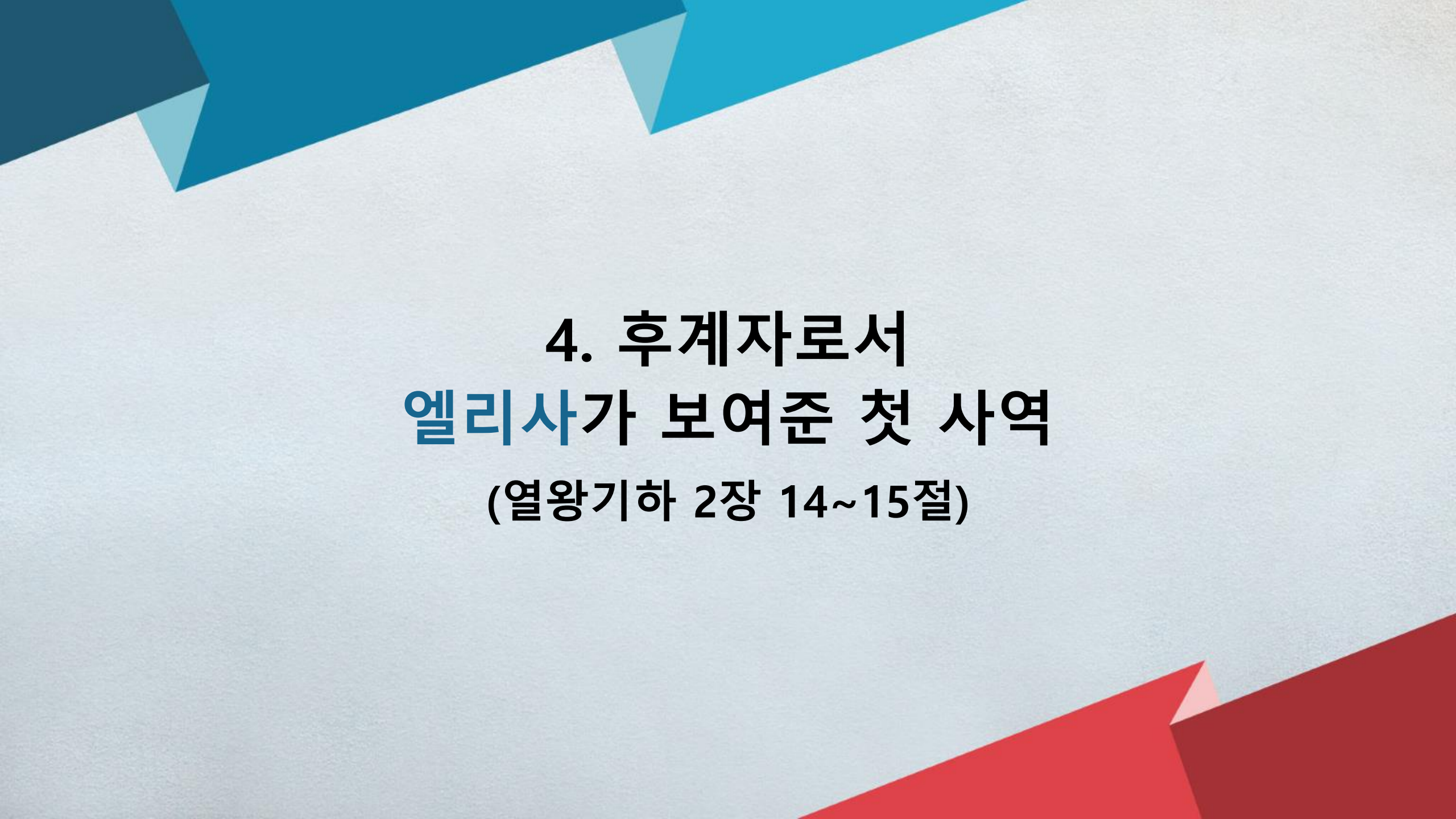
- 2) 그 광경을 목격한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12절)라고 외친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둘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은 둘 사이를 갈라놓은 불 수레와 불 말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의미한다
같은 내용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 그를 문병 온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입을 통해 표현되기도 했다(왕하 13:14)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엘리야의 승천

- 3) 드디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자신이 요청한 대로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되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이중적이다
곧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둘로 찢었다
여기에서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비록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스승을 떠나보내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하였다.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의 겉옷을 취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3. 엘리야의 승천

- 4) 스승과 제자로서 둘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의 겹옷을 취함으로 선지자로서의 공적 사역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 모습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 1:23~24)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크지만(하늘의 소망)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다는 고백이다



4.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보여준 첫 사역 (열왕기하 2장 14~15절)

엘리아의 겹옷을 취함으로
엘리사는 정식 후계자가 되었다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행한 첫 사역**은
엘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기적이었다

4.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보여준 첫 사역

- 1)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로 돌아오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
- 2)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겹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계시나이까”라고 외쳤다
그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후계자인 자신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고백의 기도이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
- 3)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 4) 그런 광경을 목격한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던 선지자(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계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사람에 따라 사역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적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2.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3.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